

# 북미 스타트업과 기술동맹 확보 “모빌리티 패러다임 주도 본격화”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데이’ 개최 디트로이트서 비전, 투자현황 소개 현지 우수기업 등 협력·수주 확대

현대모비스가 북미 현지에서 스타트업 대상 투자 설명회를 열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동맹 확보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9일(현지시간) 자동차 산업 본고장인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제4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미 현지 고객사와 스타트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사업 비전과 투자 현황 등을 알렸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개최 장소를 디트로이트로 결정한 것은 최근 글로벌 수주 상당수가 북미 고객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고객사가 위치한 현지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우수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 향후 고객사에 제품을 프로모션하기 용이한 점도 반영했다.

디트로이트는 스타트업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을 토대로 생산과 품질관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으로 무장한 모빌리티 신생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지역적 특성에 기반해 현대모비스가 초청한 현지 유망 스타트업들도 발표자로 나서 로보틱스와 클린테크 등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트렌드에 대해 심도 있게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 임직원이 발표하는 모습. /현대모비스

논의했다.

현대모비스는 ‘모비스 in 글로벌’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전동화, 전장 혁신 기술 등을 소개했다. 사업 비전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와 투자 전략 등도 발표했다.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 임직원들이 직접 발표해 생동감과 전문성을 더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모비스벤처스 실리콘 밸리(MVSV) 투자 담당 미첼 윤은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과 전략적 투자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는 기술과 사업성 검토 등 사업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2018년 실리콘밸리에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을 둔 이래 지난해까지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20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미국 반도체 회사 엘리베이션 마이크로시스템즈에 1500만달러 신규 투자를 감행했으며, 2020년 영국 엔비직스에 지분 투자해 증강현실 기반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용 고성능 이미지 레이다 개발사 젠다, AI 기반 반도체형 라이다 업체 라이트아이씨,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기업 소나투스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 유망 기업들과도 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400억 규모 ‘K뷰티 펀드’로 中企 밀어준다

중기부, 400여社 참여 펀드 출범식 코스맥스·콜마·모태펀드 자금 투입 뒤편 “오픈이노베이션 본격화 기대”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은 ‘K-뷰티 펀드’가 최초로 탄생했다. 올해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뷰티 브랜드 기업, 뷰티 테크, 스타트업 등 대한민국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한다. 코스맥스, 콜마, 모태펀드가 자금을 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400여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내 화장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생산 역량과 강력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68억 달러를 달성,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선만큼 K-뷰티 펀드가 제조사와 뷰티 중소·벤처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K-뷰티 펀드 출범식’에서 신현규 코스맥스 부사장(왼쪽),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오른쪽)와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최고 수준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이번 펀드는 K-뷰티의 세계화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장을 지원해 K-뷰티 생태계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서 코스맥스 부사장은 “K-뷰티 펀드를 통해 고객사와 마케팅·유통사·원부자재 회사 등 뷰티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데 밀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범식에 이어 올리브영, 한국콜마, 화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가 열렸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대응방안을 포함한 ‘K-뷰티 수출가이드’ 세션도 진행했다.

오 장관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K-뷰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K-뷰티 펀드 조성 및 민관 협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신설, 국제박람회 개최 및 K-뷰티 면세점 입점 지원 확대 등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특히 싸움 끝... 글로벌 수주 경쟁 돌입

LS전선·대한전선

싱가포르, 남아공서 각각 수주 낭보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 넘게 이어진 특허 분쟁에 최근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다툼은 끝났지만 같은 날 해외에서 대형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 소식을 각각 발표하는 등 ‘법정 밖 기싸움’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LS전선은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지중 송전 구간에 230kV(킬로볼트)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며 케이블의 제조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LS전선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중 케이블 공급을 계기로 향후 해저 케이블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 법인인 엠텍이 약 520억원 규모의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지 국영 전력공사인 에스콤이 발주한 것으로, 중저압(MV·LV) 케이블과 가공선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아공의 전력 인프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의 일환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남아공은 높은 수준의 금융 및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으로 최근 전력 및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엠텍은 현지 생산 기반과 다년간의 수주 실적,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전력 인프라 공급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정부, ‘중소·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

정부가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에만 허용하던 옥외광고를 레미콘트럭, 지게차 등 9종까지 늘린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변경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권역간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엔 최초로 고용허가권을 받은 사업장이 있는 권역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다.

커피 등 휴게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즉 복층구조인 높이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상·하층 높이를 1.7m 이하로 제한하다보니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10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음부즈만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

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심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기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체별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에서 발굴한 수요자 맞춤형 규제예외 해소방안 총 60건이 포함돼 있다.

제조·건설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배치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 개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 수출입·조달에선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 표시를 허용해 국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사업장(HACCP, KS 등 12종)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각각 포함돼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베트남서 SW인재 키운다

다양한·베 정보통신기술대와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스타트업들을 위해 베트남 소프트웨어(SW) 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

중진공은 중소기업부와 함께 10일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한·베 정보통신기술(ICT)대학교(VKU)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해 7월 중기부와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체결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이다. 현지의 우수 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을 양성해 한국 스타트업의 관련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SW 실무 역량 강화 교육 ▲한국 스타트업 취업

매칭 ▲멘토링, 세미나, 일자리 박람회 등 공동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진공은 한국 스타트업 취업에 관심 있는 베트남 현지 교육생을 선발해 스타트업 현장 중심의 이론·실습부터 한국어 교육, 한국 기업문화 교육,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VKU는 교육생 모집, 강의장 등 인프라 제공, 세미나 및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담당한다.

중진공은 또 지난 8일 베트남 호치민기술대(HUTECH)와 현지 우수 SW 인력과 K스타트업 간 채용 연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승호 기자